

특집호

2023 이슈 & 포커스

부산광역시체육회 민선2기 장인화 회장 취임
2022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2023 이슈 & 포커스



부산광역시체육회 민선2기
장인화 회장 취임



5년을 기다린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2022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대한민국 체육인들의 뜨거운 축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추운 겨울, 동계스포츠 축제의 뜨거운 열기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제 한마당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광역시체육회 민선2기 장인화 회장 취임

2022년 12월 15일 실시한 제27대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선거는 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장인화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지역 상공계와 연계한 회원단체의 안정적 운영 도모, 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및 권익 옹호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투표 결과, 총 유효표 382표 중 251표(65.7%)를 얻어 재선에 성공한 장인화 회장은 “시민, 체육인들과 함께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체육 발전에 힘쓰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인화 회장은 재선 성공의 이유로 ‘변화의 물결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체육인들의 마음’을 꼽았다.



이렇듯 체육인들이 걸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공약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뛴 것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민선1기가 재정적·제도적 안정을 찾는 시기였다면, 민선2기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잡힌 운영과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시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경영다운 경영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관내 4개의 체육시설 운영, 지역 기업인들의 참여를 이끄는 등 재정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기반과 더불어 지난해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이 발표한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이라는 공약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와 소통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장인화 회장은 2월 17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스포츠는 단순한 운동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제공돼야 하고,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돼야 한다”는 말과 함께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로 행복도시 실현’이라는 정책비전을 선포하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5년을 기다린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2022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2022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가 9월 23일(토)부터 10월 8일(일)까지 16일간 열전을 벌이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를 획득, 종합 순위 3위를 차지하였다.

부산소속 국가대표 선수들은 금 9개, 은 13개, 동 14개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큰 활약을 펼쳤다. 그중 배드민턴 안세영(삼성생명)은 여자 단식 결승에서 오른쪽 무릎 통증을 이겨내고 투혼의 금메달을, 11년째 부산 사격의 간판선수로 활약 중인 하광철(부산광역시청)은 러닝타켓 남자단체·혼성단체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2관왕에 등극했다. 한국 수영 황금기에 백인철(부산광역시중구청)은 접영 50m 결선에서 23.29초로 아시아경기대회 신기록을 세우는 기염을 쏘아냈다. 출전한 모든 국가대표 선수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사진출처: 대한체육회)



대한민국 체육인들의 뜨거운 축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3일(금)부터 19일(목)까지 7일간 전라남도 일원 (목포종합경기장 등 70여 개 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폐막 이후 5일 만에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된 만큼, 대한민국 체육인들의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이어졌다. 대회 결과 최우수선수상(MVP)은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 선수에게 돌아갔으며, 전국체육대회 3회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대회 종합우승은 경기도(총득점 6만 4,856점)가 차지하였다.

부산 선수단은 이번 전국체육대회 맹활약을 펼치며 쾌거를 거두었다. 종합순위는 7위, 6대 광역시 중 1위를 기록했다. △총득점은 3만 8,657점 △메달 187개(금 46, 은 64, 동 77)를 기록했다. 부산은 총 47개 종목 중 △세팍타크로 △사격 △승마 △에어로빅·힙합, △요트 등 5개 종목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세팍타크로팀은 전국체육대회 6년 연속 최정상에

올랐으며, 4개 종목 중 3개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주며 최강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부산체고 세팍타크로부는 4년 만에 남·여 동반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최인정(계룡시청) 선수에 패해 은메달을 획득한 펜싱 에베 송세라(부산시청) 선수는 이번 전국체육대회 결승전에서 다시 만나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수영 백인철(부산광역시중구청) 선수는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접영 50m 금메달에 이어 금빛 질주를 일어나가며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다. 에어로빅·힙합 류주선 선수(부산시체육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3관왕을 차지하는 등 부산 선수단은 눈부신 쾌거를 거두며 성황리에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부산시에서는 앞으로도 스포츠 천국 도시 부산 만들기에 힘쓰고 이 분위기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까지 이어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6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동계스포츠 축제의 뜨거운 열기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월 17일(금)부터 20일(월)까지 4일간 진행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부산광역시 선수단은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8개로 역대 최대 메달인 총 35개를 획득했다. 16년 연속 종합 5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부산시 스키선수단의 활약이 돋보였다. 크로스컨트리 종목 이의진 선수(부산시체육회)가 4관왕, 허부경 선수(부산진여고) 3관왕, 알파인 종목 강영서 선수(부산시체육회)가 3관왕을 차지하며 다관왕 배출은 물론, 금메달 10개 모두 스키 종목에서 획득하는 기염을 쏘아냈다.

부산시체육회는 3월 23일(목) 부산선수단 해단·유공자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스키, 빙상, 컬링 종목 등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종목에 표창패를 수여하였으며, 크로스컨트리 4관왕을 달성한 이의진 선수에게 MVP를 수상했다.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제 한마당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4월 27일 개최한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정상 개최되어 더욱 뜻깊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생활체육인들이 자신의 기량을 펼쳐 성취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우정을 나누며 멋진 추억을 쌓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43개(정식 40개, 시범 3개) 종목의 경기에 전국 17개 시·도 21,437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격전을 벌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왕래가 어려웠던 한일생활체육교류가 재개되면서 일본 생활체육 동호인 130여 명이 축구, 배구 등 9개 종목에 출전하여 생활체육 교류와 우호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부산선수단은 36개 종목에 선수 1,170명, 임원 130명 총 1,300명이 참가하였다. 부산선수단은 그동안 같고닮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10개 종목이 종합 3위 이내에 입상하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다.

에어로빅힙합, 체조, 풋살이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골프, 당구, 우슈, 철인3종이 준우승을 그리고 그라운드골프, 국학기공, 수영이 종합 3위를 달성했다. 에어로빅힙합은 3개의 세부 종목 중 2개 종목에서 각각 3위와 2위를 하였고, 체조는 5개 세부 종목 중 4개 종목에서 1위, 1개 종목에서 3위를 하며 압도적인 기량을 보였다. 풋살은 4개의 세부 종목 중 2개 종목에서 1위, 1개 종목에서 2위를 하였다. 비록 종합 순위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이 외에도 부산선수단은 각 종목에서 우수한 실력을 뽐냈다. 골프, 당구, 수영, 스쿼시, 씨름, 육상, 자전거, 태권도, 합기도 등의 세부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던 부산선수단은 내년에 열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기약하며 4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6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